

Ⅱ 최신산업간호연구동향Ⅱ

산재근로자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장내 보건관리자 활용방안

The Application of the Health Manager to Return-to-work
of Workers Injured by Industrial Accidents

윤순녕 · 이현주 · 윤주영

한국산업간호학회지 제14권 제1호

본 연구의 목적은 산재근로자들의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내의 보건관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2003년에 장해판정을 받은 산재 근로자 30,356명 중 서울과 경인지역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복귀한 사업장 중 설문에 응한 10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보건관리자가 있는 사업장은 70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는 33개 이었다. 자료수집은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V8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t-test를 시행하였다.

순회, 보호구사용지도, 건강증진사업을 보건관리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배해 안전관리자는 작업안전수칙지도, 안전관리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와 관련한 직무 중 직장복귀 후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과 보건교육, 그리고 손상부위에 문제로 재활기관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에 있어서 보건관리자가 통계적으로 높은 수행정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관리자가 있는 사업장은 제조업 (62.9%) 안전관리자는 서비스업종 (42.4%)이 가장 많았다. 두 직종이 모두 사업장 규모가 300-1000명에 배치(62-69%)되었다. 면허 및 자격소지는 간호사가 81%, 산업위생·환경관리기사가 30%였다.
2. 일반적 직무 중 보건관리자는 일반질병 관리와 상담, 요주의자 관리, 직업병유소견자관리, 응급처치, 보건교육, 작업장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대체로 많은 보건관리자들이 산재근로자들의 직장복귀는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산재근로자들이 직업복귀 후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면 효과적으로 직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에는 산재예방과 산재이후 치료와 재활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와 재활에 대한 연속성과 연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산재 전후 동일한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보건관리자가 사례관리 과정을 접목하

여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의무배치하고 있으므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사례관리 과정을 통하여 산재근로자들의 직장복귀를 높일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하여 공식적

인 규정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재근로자의 산재 발생 전 사업장과 치료와 요양기간의 의료기관, 치료종결 후의 직장 복귀한 사업장을 연결하며 재활과 적응을 하도록 관리 계획을 하는 사례관리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